

광주음악 역사 음악가들 여정 '과거路, 미래路'

'제32회 광주음악제' 16~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2 1970~2020년대 음악...80대 원로부터 10대까지 300명 출연

'광주음악, 지나간 과거의 긴 길에 서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다'

'광주음악제'는 광주를 대표하는 음악축제(사)광주음악협회(회장 윤영문)가 주최하며 해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예술의 향기를 전해왔다.

올해 32회를 맞은 광주음악제의 주제는 '광주음악 과거路, 미래路'로 과거 1970년대에서 2020년대 현재의 광주음악의 역사적 배경과 음악가들의 여정을 엮어가는 서사적 음악 무대로 꾸며진다. 축제는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김장경 에니토리대표가 기획과 총감독을 맡아 '회한', '추억', '음악', '중심', '순간', '청년'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클래식, 국악, 실용음악, 합창 등 50여 악기 구성과 23개 연주팀, 300여명의 광주 음악인이 협력해 광주음악의 역사적 흐름을 엮어내는 무대로 80세 원로부터 10대 초등학교까지 70년의 연령차를 넘는 연주진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축제 첫날인 16일 공연 주제는 '회한(回還) 1970년 음악의 길을 돌아보다'로 작곡·성악·피아노 등의 원로 중견 연주자들이 무대를 꾸민다.

레퍼토리는 바흐 '샤콘느', '낙화', 파가니니 '라 캄파넬라', 브람스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슈만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집 민요풍의 5개의 소품' 등이다. 바이올린 오현미, 피아노 김선자·주소영·서영화, 테너 박재욱, 바순 이우광을 비롯해 위드플루트콰이어, 골드필오케스트라 등이 무대를 채운다.

둘째날인 17일에는 '추억(追憶) 1980년 음악의 길을 돌아보다'를 주제로 번스타인 '칸디드 서곡', 베토벤 '피아노 3중주 Op.1 No.3' 등을 연주한다. 김연준 '비가', 장배근 시에 장호가 곡을 붙인 '선암사 흥매화', 윤학준 '마중'도 들려준다. 무대에는 앙상블 P&S와 광주호른사운드, 메조소프라노 신은정, 테너 김백호·송태왕, 피아노 구재향·김은영·황미경·유정아, 첼로 윤소희 등이 오른다.

세번째 공연(18일)의 주제는 '음악(音樂) 1990년 음악인생 흥을 읽다'로 바이올린 윤성근·박승원, 비올라 권혜린, 첼로 박효은, 피아노 동수정·심정미, 베이스 김일동, 소프라노 장마리



테너 박재욱



신지용 트리오



베트남 작가 꾸억탕의 작품

광주·베트남 현대미술전

광주전업작가회, 25일까지 드영미술관

베트남 화단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 작가들과 베트남 작가들이 함께 전시회를 진행한다.

광주전업작가회(회장 박지탁)는 오는 25일까지 무등산 자락 드영미술관에서 '2021 광주-베트남 하이퐁 현대미술교류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전업작가회가 베트남 북부 최고 항구도시 하이퐁 작가들과의 교류전을 진행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기획해 왔던 프로젝트로 눈길을 끈다.

전시에는 광주의 원로작가부터 젊은 작가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가 참여해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을 전시한다. 참여작가는 조규일·김인화·김재일·강남구·강영자·고희석 작가 등 모두 68명이다. 베트남 하이퐁에서는 브이티홍, 르반 르응 등 21명의 작가가 참여해 인물화, 풍경화, 정물화 등 베트남의 다양한 화풍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경우 팬데믹 상황으로 작가들의 직접 교류가 어려워 베트남 작가들이 광주를 방문하지는 못했으며 내년에는 베트남 하이퐁 현지에서 광주와 베트남 작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류전을 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첼리스트 송현

광주음악제 무대 서는 피아니스트 김선자 "80세 연주 긴장...서정적 브람스 곡 들려드릴게요"

80세 노(老) 피아니스트의 연주는 어떨까.

올해 여든을 맞은 피아니스트 김선자(80)가 제32회 광주음악제 '광주음악 과거路, 미래路' 무대에 선다. 음악제 첫 날 무대에서 피아니스트 한정숙(호남신학대학교 명예교수)과 함께 브람스의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연주하는 그는 이번 음악제에 참여하는 기악 연주자 중 최고령이다.

김 씨는 "인생에서 한번 정점을 찍고 정리하는 기회가 아닌가 싶다"며 "다음에 또 어떤 세상(무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1977년부터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전남대에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지난 2008년 정년을 기념하는 음악회 무대에선 이후 두어차례 공연을 가졌고 이번이 13년만의 무대다.

"처음 권유를 받았을 때는 '생각 좀 해보자'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제자를 통해서도 무대에 서달라고 부탁을 해주더라고요. 공연을 한 지도 오래됐고 피아노 실력도 퇴보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퇴직 후 지금까지 꾸준히 피아노 연습을 해서 그런지 손가락이 다 굳지는 않았더라고요.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잠잘 때 산책할 때 빼고는 거의 피아노를 쳐요. 긴장은 되지만 준비가 나름 잘 되고 있어 다행이에요."

그는 브람스 곡에 대해 "늦가을에 어울리는 곡"이라며 서정적이지만 기교가 골고루 들어있어 쉽지 않은 곡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와는 피아노아카데미 등에서 활동을 함께 했다. "한 교수가 서울에서 지내 광주 내려와서 연주를 맞춰보는데 합이 잘 맞아서 좋습니다. 젊었을 적 활동할 때도 좋았는데 이렇게 같이 무대에 서게 되니 기뻐요. 손발도 잘 맞고요."

김 씨는 남은 일생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특히 영어 공부, 기타 연주 등에 도전할 생각이다.

"하루하루 별 탈 없는 조용한 날을 보내는 게 소원이지만 그 안에서 저만의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이에요. 잠시 중단했던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전남대 클래식 기타반 지도교수 일 때 클래식 기타의 매력도 알게 됐는데 기타 연주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피아니스트 김선자

이왕재 명인 '소리굿+1'

국악한마당, 18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광주 서구는 제676회 목요열린국악한마당 공연에 이왕재 명인을 초청해 타악 발표회 '소리굿+1'을 선보인다. 18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이날 공연은 남사당패에서 불리우던 '축원소리'와 남도의 '판소리'가 함께하는 무대로 신디, 모듬북, 배이스기타, 아쟁, 가야금 등의 연주를 만날 수 있다. 레퍼토리는 '부모은중경', '비나리', '춘향가' 중 '이별가' 등이다. 공연에는 최근 '조선판소리'에서 우승을 차지한 국악인 김산옥이 특별출연한다.

한편 국악실내악단 황토제 대표이자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타악 수석단원인 이왕재는 광산·영광·농악, 모듬북, 고법 등을 공부했으며 여러 무대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쳐왔다.

무료관람. 문의 062-350-455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왕재 명인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